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Received: January 26, 2026
Revised: March 3, 2026
Accepted: March 6, 2026최효선¹, 임지윤², 양수진³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박사과정¹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석사과정²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수³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E-MAIL: sujinyang@ewha.ac.kr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ildbirth Decision Delay
ScaleChoi Hyosun¹, Jiyou Lim², Sujin Ya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h.D.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³* 해당 논문은 2025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
발달 분과 포스터로 발표됨©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이 출산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이유와 맥락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출산 경험이 없는 만 25~40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두 개의 독립표본을 수집하였다. 연구 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척도의 구성요인을, 연구 2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결정 지연은 경제적 부담, 개인 선택권 추구, 출산양육 건강 부담, 사회적 지원 부족, 미래 세대 염려, 사회문화적 압박의 6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다. 개발된 척도는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출산 의향, 우울, 행복과의 준거 관련 타당도가 지지되었고,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통해 출산 결정 지연이 출산의향을 부정적으로 예측함이 확인되어 구성 타당도 또한 지지되었다. 본 척도는 출산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실증 연구 및 정책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출산 결정 지연, 저출산, 척도 개발, 출산 의향

한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라는 전례 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 초저출산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OECD, 2024). 적정한 인구 규모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청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 사회 복지 불균형 등 국가적 수준의 복합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최영미, 박윤환, 2019).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을 회복을 위해 주거 지원, 보육 인프라 확대,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출산율 회복은 제한적이다. 이는 기존 정책들이 개인의 출산 결정을 형성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는 장기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심리적, 세대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은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Lutz et al., 2006). 저출산의 덫은, (1)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 (2) 출산 관련 사회적 기대와 규범의 하향화, (3)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불안 증가가 서로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거 비용 상승, 고용 불안정,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은 청년층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석호, 2022; 박미경, 2022; Kwan, Choi, 2023). 개인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여러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노동 중심의 직장 문화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출산 결정의 지연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조형숙, 조현정, 2021).

그러나 출산 결정은 경제적·제도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사회문화적 환경, 심리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Kwon, Kim, 2022). 특히 한국 사회의 강한 집단주의적 가치는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사회도덕적 책임으로 규정해 왔으며,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출산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부과한다(Shin 외, 2025). 더욱이 한국의 집단주의는 높은 수준의 양육 투자와 '좋은 부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김지성, 2025; 이윤석 외, 2016).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심리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강화되면서, 출산을 시도하기 위한 기대 수준이 상향되고, 이는 출산 결정의 심리적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 과정의 신체적 부담 및 부정적 기대(Güney 외, 2022), 자아실현과 자기주도적 삶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Kim, 2017; Lezano, Jamieson, 2020), 성취 중심적 사회 문화 등은 전통적 가족 규범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여성에게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경력 단절을 비롯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초래하기도 한다(Shin 등, 2020). 즉, 사회적으로는 출산이 책임으로 기대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경력과 자기계획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규범적 기대와 개인적 가치 지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긴장 구조 속에서 저출산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거부라기보다, 다양한 조건 속에서 출산 결정이 유보되거나 지연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구학 연구는 합계출산율의 하락이 출산 포기 자체보다는 첫 출산 연령의 상승과 관련된 템포 효과(tempo effect)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해왔다(Bongaarts, Sobotka, 2012).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부모됨으로의 전환이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Chen, 2024). 이는 개인들이 경제적 부담, 경력 불안, 심리적 두려움, 사회적 압력, 가치관 변화 등 상충하는 요인들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한 채, 출산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미루는 상태에 머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정 유보가 장기화될 경우 생애 전반의 출산 가능성을 축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출산 결정의 지연은 성인기 발달 과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전통적으로 출산은 성인기 초기 및 중기에 수행되는 핵심 발달 과업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세대 재생산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생애 구조를 재조직하는 전환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왔다(Erikson, 1968).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 기간의 연장, 고용 불안정, 경력 개발 가치의 강화, 개인주의적 삶의 지향이 주요 생애 사건의 시기를 전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그 결과, 출산 역시 전통적인 발달적 ‘사회적 시계(social clock)’로부터 점차 이탈하는 양상을 보인다(Yang 외, 2025). 특히 청년기의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 성인기 전환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지연을 구조화하며, 이는 출산 시기의 지속적 연기로 구체화된다.

이처럼 출산 지연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발달적 기대와 구조적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출산 의향’이나 ‘희망 자녀 수’와 같은 결과 중심 지표에 초점을 두어, 출산 여부라는 최종 상태를 설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결과 예측에는 유용하지만, 여러 차원의 부담과 가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누적되어 출산 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출산 지연을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형성 과정을 정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 기피나 혼인 감소 중심으로 설명해온 기존 관점 역시 재검토가 요구된다(Cho, 2021; 김인춘 외, 2024). 오늘날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일직선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딥크족(DINKs)이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김성엽 외, 2023). 이는 출산이 결혼의 파생적 결과가 아니라, 독립적인 결정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산 지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 여부와 구분된 차원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산 결정지연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심리적 과정을 연구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측정학적 도구는 부족하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출산 관련 측정 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적이다. 첫째, 희망 자녀 수나 출산 시기를 묻는 단일 문항만을 사용(이명진, 2022), 출산 회피 이유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방식(이삼식, 2006), 체계적인 분석절차를 따르기보다는 선행연구나 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이 사용되는 등(박다운, 유계숙, 2011; 김경선, 오진환, 2007) 통계적인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둘째, 국내에서 활용되는 출산 관련 척도들은 한국 사회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부 척도는 서구에서 개발되어 한국 사회의 가치관, 환경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주혜민과 양수진(2024)이 번안한 출산태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K-AFCS)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지수가 높고 복지 제도가 잘 정비된 스웨덴에서 개발된 척도로, 전통적 가족 중심인 한국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세계경제포럼, 20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1995년부터 부모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을 부모 각각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였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와 공동 양육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라이다. 반면 한국은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불이익 우려와 조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배운진 외, 2024, 장선화, 2018).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가족 형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사회의 맥락을 반영한 출산 관련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출산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미혼자나 남성들의 인식과 경험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남성 역시 출산 결정을 둘러싼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임지영, 2022; 정문경, 2023). 출산 결정 과정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서 직접적인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경력 단절이나 직장 내 불이익 등 사회적 부담을 남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Kim, Kim, 2023; Kwon, 2014). 반면 남성은 경제적 책임이나 생계 부담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주요한 부담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임지영, 2022).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기혼 여성만으로 제한하기도 해 다양한 인구집단을 고려한 측정 도구가 부재한 상황이다(권민혁, 김은하, 2022). 동일한 ‘출산 결정 지연’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출산 결정 지연 요인을 측정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혼 성인 남녀(25~40세)를 대상으로 출산 결정 지연 요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출산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한 설명의 폭을 확장하고 대한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출산 결정 지연 척도는 어떤 요인과 개념으로 구성되는가?

연구 문제 2. 개발된 출산 결정 지연 척도는 신뢰롭고 타당한가?

연구 1

연구 1에서는 개인이 출산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는 이유와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고, 문항 양호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비 요인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출산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전국 거주 성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패널을 활용한 할당표집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응답을 완료한 연구대상자는 남성이 345명(49.3%), 여성이 355명(50.7%)이었으며, 미혼 500명(71.4%)과 기혼 200명(28.6%)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력과 소득 수준은 출산의 경제적 기회비용 및 양육 투자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되며(배호중, 한창근, 2016), 종교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 및 출산 규범과 연관되어 출산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조광덕,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해당 특성들을 포함하여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1,347)

특성	연구1 (n=700)	연구2 (n=647)
성별		
남성	345(49.3%)	263(40.6%)
여성	355(50.7%)	384(59.4%)
연령		
25~29세	210(30%)	191(29.5%)
30~35세	242(34.6%)	244(37.7%)
36~40세	248(35.4%)	212(32.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8.3%)	68(10.5%)
전문대(2~3년제) 졸업	121(17.3%)	115(17.8%)
대학교(4년제) 졸업	449(64.1%)	402(62.1%)
대학원 졸업 이상	72(10.3%)	62(9.6%)
월 소득		
100만원 이하	18(2.6%)	27(4.2%)
100만원~200만원	54(7.7%)	59(9.1%)
200만원~300만원	226(32.3%)	181(28%)
300만원~400만원	150(21.4%)	145(22.4%)
400만원~500만원	63(9%)	58(9%)
500만원~600만원	31(4.4%)	23(3.6%)
600만원~700만원	16(2.3%)	9(1.4%)
700만원~800만원	11(1.6%)	7(1.1%)
800만원 이상	25(3.6%)	10(1.6%)
소득 없음	106(15.1%)	128(19.8%)
결혼 상태		
결혼 경험 있음	200(28.6%)	208(32.2%)
미혼(결혼 경험 없음)	500(71.4%)	439(67.8%)
종교 유무		
종교 있음	193(27.6%)	172(26.6%)
종교 없음	507(72.4%)	475(73.4%)

연구도구

출산 결정 지연 예비척도

출산 결정 지연 예비척도는 개인이 출산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이유와 맥락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문항 개발은 출산 결정 및 저출산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 직업 및 경력 요인, 양육 부담, 사회적 지원,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영역이 확인되었다. 이후 20~30대 성인 1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고민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을 수집하였다. FGI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20~30대 성인 남녀 13명($M = 26.08$ 세, $SD = 4.27$, 여성 = 84.6%, 남성 = 15.4%)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사회적 압력 경험 등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약 90~120분간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주제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답변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과 관련된 주제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예비 문항 구성에 반영되었다. 초기 문항은 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대학원생 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각 하위 영역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문항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총 27개의 예비 문항이 구성되었다. 예비척도는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이 출산 결정 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Ewha-202504-0026-01). 온라인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한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문 온라인 설문 전문기관을 통해 25~40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예비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자는 패널 모집을 기반으로 연령, 성별, 결혼 상태 등을 고려한 할당 표집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FGI 및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응답 익명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동의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Mplus 7.0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SPSS를 사용해 기술 통계와 문항 분석을 실시하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분포의 정상성을 검토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는 경우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문항-총점 상관관계는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상관관계수가 .30 미만인 문항은 제거 후보로 검토하였다. 다만 일부 문항은 상관관계가 .70 이상이었으나 내용적 중복성이 낮고 개념적으로 독립

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유지하였다(Clark, Watson, 1995). 또한 문항 간 상관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척도의 개념 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DeVellis, 2012).

척도의 구조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 결정은 고전적 기준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확률론적 요인 결정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Mplus에서 Geomin 회전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문항은 요인 부하량 .40 미만, 공통성 .40 미만, 혹은 교차부하가 높은 경우 제거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다(Floyd, Widaman, 1995). 최종 문항 구성은 통계적 적합성과 이론적 개념 일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확정하였다.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SPSS를 활용해 Cronbach's α 로 산출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점검함으로써 변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결 과

문항 및 신뢰도 분석

FGI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발한 27개의 예비 문항 중 변별력이 없거나 극단값을 갖는 문항을 가려내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산 결정 지연 예비 척도 문항들 평균의 최소값은 3.07, 최대값은 3.83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정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극단값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각 문항은 적절한 난이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왜도 및 첨도 또한 기준에 적절하였다.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는 .536에서 .729로 나타난 바, 적절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37로 내적합치도가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이 없으므로 전체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출산 결정 지연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지수를 확인하고 Bartlett 구형성 지표(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검증을 실시하였다(Cerny, Kaiser, 1977). 그 결과, KMO 지수가 1에 가까운 0.948로 나타나, 0.8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Bartlett 구형성 지표는 $\chi^2(351) = 14935.192(p < .001)$ 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예비문항 27개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1요인부터 7요인까지의 모형을 비교하였다. 각 요인 모형의 모델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7요인 모형에서 가장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7요인 모형에서는 특정 요인에 1개의 문항이 부하되는 등 요인을 신뢰롭게 측정하기 어렵고, 이론적 해석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한편, 6요인 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7요인 모형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chi^2(204) = 960.007, (p < .001), RMSEA = .073, CFI = .949, TLI = .912, SRMR = .023$), 보다 간결하고 이론적으로 명확한 요인 구조를 제공하였다(Asparouhov, Muthen, 2009). 이에 따라, 6요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6요인 모형을 기준으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교차요인부하량, 공통성 지수를 검토하였으며, 요인

표 2. 출산 결정 지연 척도 문항과 요인부하량($N = 700$)

번호	문항	요인부하량						공통성
		1	2	3	4	5	6	
1	소득 수준 대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커서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85	-0.05	-0.01	0.07	0.03	0.02	0.77
2	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걱정으로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0.91	0.01	0.00	-0.02	-0.01	0.02	0.81
3	자녀 교육에 들어갈 비용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	0.85	0.06	0.02	0.04	-0.02	0.03	0.84
4	자유로운 삶이 제한될 것 같아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5	0.87	-0.05	0.01	-0.06	0.02	0.73
5	출산 후 생활방식의 변화가 부담스러워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0.04	0.91	-0.02	-0.02	-0.03	-0.02	0.76
6	내 인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낫다.	-0.12	0.62	0.04	-0.02	0.08	0.07	0.47
7	신체적/체력적 부담이 걱정되어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3	0.60	0.00	0.10	0.02	0.07	0.55
8	육아/양육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	-0.04	0.78	-0.03	0.12	0.01	0.02	0.70
9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체력적 부담이 걱정되어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	-0.01	0.73	0.07	0.03	0.06	0.00	0.68
10	임신과 출산, 육아/양육 지원 정책(보육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부족으로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8	-0.03	0.77	0.01	-0.04	0.03	0.66
11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2	0.05	0.83	0.01	-0.02	0.03	0.71
12	가족친화적 직장 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의 부족으로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2	-0.01	0.82	0.09	0.01	-0.02	0.71
13	자녀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되어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0.08	-0.01	0.00	0.78	0.00	0.04	0.72
14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기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1	0.02	0.00	0.90	0.00	0.01	0.82
15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워야 할 걱정 때문에 출산이 주저된다.	0.06	0.10	0.03	0.71	0.07	-0.04	0.71
16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육아/양육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	0.00	-0.01	-0.03	-0.01	0.78	0.19	0.79
17	부부간 육아/양육 부담이 불평등할 것 같아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0.01	0.08	-0.03	0.02	0.90	-0.04	0.77
18	직장에서 자녀가 있는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	0.01	0.00	0.12	0.03	0.71	0.04	0.67
19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부담스럽다.	0.00	0.13	-0.01	0.03	-0.02	0.81	0.79
20	자녀가 없는 삶은 불완전하다는 통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산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0.00	-0.01	0.02	-0.03	0.09	0.84	0.79

부하량이 .4 이하인 문항 3개, 교차 요인부하량이 .3 이상인 문항 1개를 삭제하였다. 또한 공통성이 1.0 이상으로 분산이 과도하게 추정되어 모형의 수치적 불안정성과 과적합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1개 문항이 최종 척도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예비문항에서 7개의 문항이 삭제된 20문항이 최종 척도에 포함되었으며, 20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 및 공통성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요인 구조가 독립 표본에서도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성개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 출산 의향, 우울, 행복과의 관련성을 통해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칙적 연결망 분석을 통해 출산 결정 지연이 출산 의향을 예측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2는 연구 1과 다른 독립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만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출산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 647명이었으며, 남성 263명(40.6%), 여성 384명(59.4%)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208명(32.1%), 미혼 439명(67.9%)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앞선 표 1에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출산 결정 지연

출산 결정 지연 척도는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출산 결정을 지연하게 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며,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 결정 지연에 해당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애정

지각한 부모의 애정은 Robinson 등(1995)이 개발한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Short Version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2018)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 중 권위있는 양육 방식(예: “부모님은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다”) 5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출산의향

출산의향은 신윤정 외 (2020)가 실시한 ‘출산의향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의 단일 문항(“귀하는 현재 또는 미래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 = 매우 부

정적, 5 = 매우 긍정적)으로 평정하였다.

우울

연구대상자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Derogatis(2001)이 개발하고 박기쁨 등(2012)이 한국어로 변안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18(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 중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예: “기분이 울적하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 = 전혀 없다, 4 = 아주 심하다)로 평정하였다. 전체 문항 중 우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선행연구에서 .80로, 본 연구에서는 .86로 나타났다.

단축형 행복 척도

행복은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 및 타당화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3개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져 삶의 만족 3문항, 긍정정서 3문항, 부정정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점수는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 문항의 합에서 부정정서 응답의 합을 뺀 점수로 산출되었으며, 7점 Likert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7 = 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삶의 만족이 .88, 긍정 정서가 .81, 부정 정서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6, .89, .8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분석은 Mplus에서 수행되었고, χ^2 통

계의 표본 크기 민감성을 보완하기 위해 CFI, RMSEA, SRMR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CFI $\geq$.90, RMSEA $\leq$.08, SRMR $\leq$.08로 설정하였으며(Hu, Bentler, 1999), 이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잠재요인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도 함께 검증하였다.

준거 타당도는 우울, 지각된 부모 애정, 출산 의향과의 상관을 활용해 평가하였다. 또한 이론적 구조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와 Meehl(1955)의 법칙적 망조식에 근거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 변수 간 관계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른 잠재요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지표 다중원인(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MIMIC)모형을 적용하였다. MIMIC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장 기법으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지표와 외생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여 집단 간 차이를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혼입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Muthen, 1989).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출산 결정 지연 척도가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6요인 구조 중 요인 2에 부하된 문항의 수가 6개로 과도하게 많고, 개인 선택권 추가와 출

산·양육 건강 부담이라는 이론적으로 구분 가능한 두 개의 하위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론적 해석과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당 요인을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한 7요인 구조를 대안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요인 6에 부하된 요인들은 2개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지표변수의 추정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 요인은 사회문화적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점에서 성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내포하고 있는 요인 5와 개념적으로 중복적인 면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요인 5와 요인 6을 하나의 구성 개념으로 통합한 수정된 6 요인 모형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타당한 요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6요인 모형, 7요인 모형, 수정된 6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세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RMSEA .08 미만, CFI가 .90 이상, SRMR이 .08 이하의 우수한 적합도를 보인 바(Bentler, Bonett, 1980; Hu, Bentler, 1999), 통계적 적합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7요인 모형은 요인 6의 문항 수가 적어 요인 추정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요인의 해석 가능성과 사후 연구에서의 구조 재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수정된 6요인 모형은 요인 5와 요인 6의 개념적 중복을 해소하여 요인 간 구분 가능성을 높였

고, 모든 요인이 적정 문항 수를 유지함으로써 통계적 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적합도 지표 또한 기존 6요인 모형보다 개선된 수준이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수정된 6요인 모형이 통계적 적합도, 이론적 적합성, 요인 간 명확한 구분, 문항 구성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충족하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6요인 모형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수정된 6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20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04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바,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Wang, Wang, 2012). 또한 하위요인 간 상관이 $r = .405 \sim .819$ 범위로 나타나, 요인 간 중복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변별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수정된 6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 추정치는 그림 1과 같다.

아울러 각 요인의 명칭은 해당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적 특성과 공통된 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요인 1은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과 제약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개인 선택권 추구’로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 추구를 위해 출산 결정을 지연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N = 647$)

모델	χ^2	df	RMSEA	CFI	TLI	SRMR
6요인	662.13	155	0.071	0.944	0.932	0.039
7요인	458.747	149	0.057	0.966	0.957	0.036
수정된 6요인	605.115	155	0.067	0.951	0.939	0.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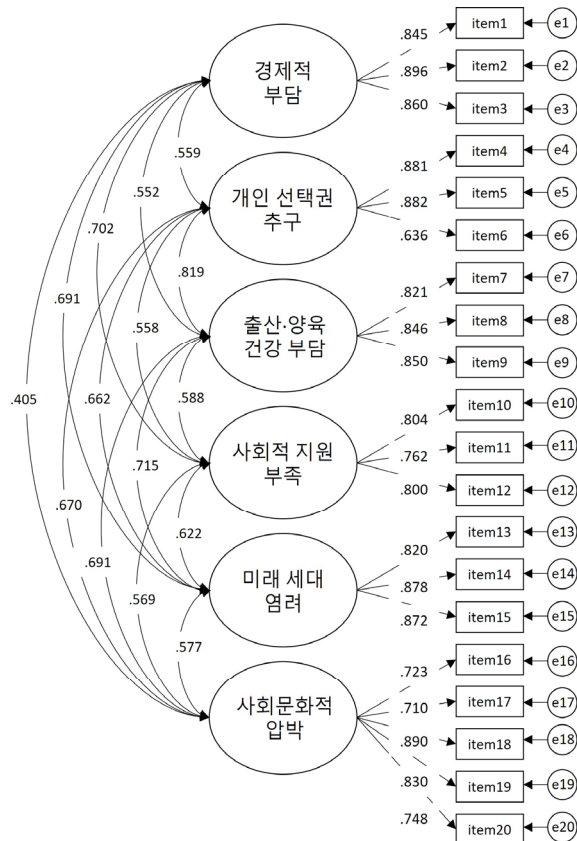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추정치

3은 ‘출산·양육 건강 부담’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부담을 우려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요인 4는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정부 및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정책적, 사회적 지원의 부

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미래 세대 염려’로 자녀가 살아갈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마지막 요인 6은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주변의 기대, 전통적 가치관, 사회적 규범 등 출산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압박과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분석

전체 2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0.943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경제적 부담’이 .900, ‘개인 선택권 추구’가 0.833, ‘출산·양육 건강 부담’이 0.831, ‘사회적 지원 부족’이 0.877, ‘미래 세대 염려’가 0.891, ‘사회문화적 압박’이 0.885로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모든 하위요인은 전체 척도 평균과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인 바($r = .710 \sim .824$), 각 요인이 구분되면서도 공통의 상위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준거 관련 타당도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변인들인 출산의향, 우울, 행복과의 상관

표 4.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N = 647$)

	<i>M</i>	<i>SD</i>	1	2	3	4
1. 출산 결정 지연	3.41	0.816	-			
2. 출산의향	3.03	1.226	-.388***	-		
3. 우울	1.25	0.884	.211***	-.217***	-	
4. 행복	1.5	0.973	-.236***	.328***	-.635***	-

*** $p < .01$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출산 결정 지연은 출산의향($r = -.388,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우울($r = .211, p < .001$)과 정적 상관, 행복($r = -.236, p < .001$)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여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칙적 망조직 분석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미 잘 알려진 다른 구성 개념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각된 부모의 애정으로부터 출산 결정 지연이 예측되고, 출산 결정 지연이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그림 2 참조). 법칙적 망조직 분석 결과, RMSEA = .08, CFI = .95, TLI = .94, SRMR = .04의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를 보였으며, 안정적인 부하량과 예상과 같은 유의한 경로가 검증되었다. 즉, 출산 결정 지연 척도는 지각된 부모의 애정으로부터 부적으로 예측되었고 ($\beta = -.14, p < .001$), 출산의향을 부적으로 예측하여($\beta = -.40, p < .001$) 출산 결정 지연 척도가 기존 문헌

에서 제시된 관련 변인들과 일관된 방식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며, 척도의 구인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MIMIC 분석

성별에 따라 출산의향 및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하위요인에서 잠재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여 다중지표 다중원인 모형(MIMIC)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하위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원 부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부담($\beta = .169, p < .05$), 개인선택권 추구($\beta = .585, p < .001$), 출산 양육 건강 부담($\beta = .611, p < .001$), 미래 세대 염려($\beta = .769, p < .001$), 사회문화적 압박($\beta = .374, p < .001$)에서 성차가 확인되었다. 출산의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beta = -.408, p < .001$).

아울러 기혼과 미혼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 및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하위요인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혼을 0, 기혼을 1로 코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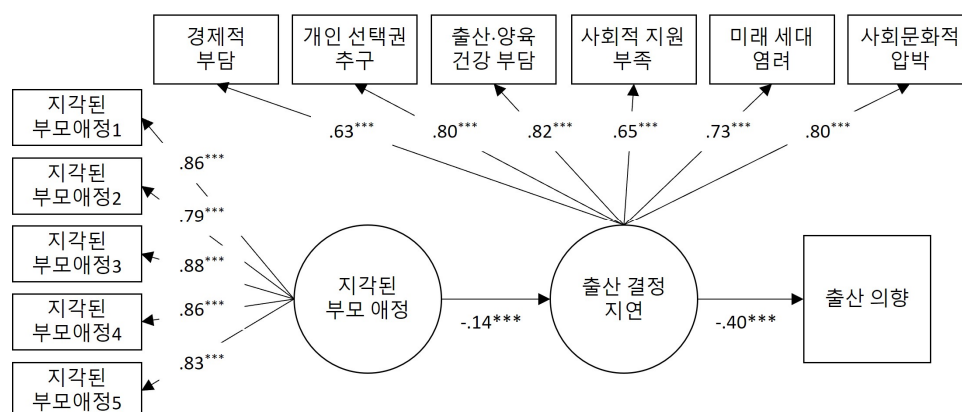


그림 2. 법칙적 망조직 분석 결과 ($N = 647$), *** $p < .001$

MIMIC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출산의향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자가 높은 수준의 출산의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beta = .186, p = .090$). 또한 출산 결정 지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기혼과 미혼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출산 경험이 없는 미혼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출산 결정을 지연시키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출산 결정 지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과 예비 조사를 거쳐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된 6요인 구조 척도를 도출하였다.

척도의 개발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된 하위 요인과 문항 수는 '경제적 부담' 3문항, '개인 선택권 추구' 3문항, '출산·양육 건강 부담' 3문항, '사회적 지원 부족' 3문항, '미래 세대 염려' 3문항, '사회문화적 압박' 5문항이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부담'은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요인으로,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출산 및 양육과 직결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낄수록 출산에 대한 결정을 미루게 된다(김석호, 2022). 두 번째 요인인 '개인 선택권 추구'는 자기개발, 경력 개발, 취미 및 여가 생활 영위 등 출산을 하지 않았을 때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에 의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출산을 사회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개인이 출산을 하더라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경력 단절 완화가 출산 장려에 필수적이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 번째 요인인 '출산·양육 건강 부담'은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개인적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로 출산 결정을 미루는 경향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산후 회복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과 건강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양육에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양육 과정에서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장기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육아 관련 지원 정책, 보육시설, 가족친화적 직장 정책 등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부 및 직장 내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로 인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양육자들이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없이는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 정부 및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정책적, 사회적 지원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시사된다.

다섯 번째 요인인 '미래 세대 염려'는 미래 사회, 환경,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자녀 세대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 기후 위기, 환경 오염, 경쟁 심화, 불평등 구조, 경제 위기 등 장기적 사회 전망이 출산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미래 방향성과도 닿아있는 요인이다. Zhao 외(2024)의 연구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출산의향이 낮다고 보고된 것처럼, 미래 세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비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 요인은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 주변의 간섭이나 압력 등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사회적 압박이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이나 거부감을 유발하여 출산을 미루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양육과 출산이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이고 규범 의식은 출산을 보류하려는 경향과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출산은 단순한 생활 사건이 아니라, 성인기에 기대되는 핵심 발달 과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 결정을 장기간 유보하는 경험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적으로 기대되는 역할 이행의 지연 혹은 유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 연령대 또래 집단과의 비교 과정에서 자신이 발달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각할 경우, 개인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뒤처짐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적 불일치감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통제감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하여 부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에서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 분석 결과, 출산 결정 지연은 행복과는 부적 상관을,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발달 과정에서 정서 상태 역시 발달 과업 수행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울과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강화하여 출산과 같은 장기적 책임을 수반하는 결정을 회피

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Zhao 등, 2024), 반대로 행복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출산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Li, 2025). 이러한 점에서 출산 결정 지연과 정서적 경험의 관계는 일방향적 인과라기보다, 발달 과업 수행과 정서 적응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출산 결정 지연은 출산의향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 결정 지연 점수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출산의 시기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출산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다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법칙적 망조직 분석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애정이 출산 결정 지연을 예측하고, 출산 결정 지연이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정서적 관계가 성인이 된 이후의 출산 관련 가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동시에 출산 결정을 미루게 하는 내적 요인들이 실제로 출산의향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출산 관련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결정 지연 척도의 잠재평균이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MIMIC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성별은 출산 결정 지연과 출산의향에 대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결혼 여부는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을 둘러싼 부담이 남녀 간에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출산 결정 지연의 과정이 단순한 혼인 여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한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경제적 부담, 개인선택권 추구, 출산·양육 건강 부담,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 사회문화적 압박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지원 부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성별 간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출산 및 양육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예: 경력단절 위험, 돌봄 책임의 불균등 분배 등),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 관련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개인선택권 추구하고 미래 세대 염려에서 나타난 큰 효과크기($\beta = .585$, $\beta = .769$)는, 출산을 개인의 삶의 질, 미래의 사회·환경적 안정성 등 장기적 가치 판단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성에게 더 강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출산의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이러한 다층적인 부담이 실제 출산 의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반면, 결혼 여부는 출산의향과 출산 결정 지연의 하위요인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혼 집단이 출산의향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지연 요인의 경우 어느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출산 지연의 결정 과정이 단순히 '결혼 여부'라는 자원 혹은 상태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여건, 직업 안정성, 사회문화적 규범, 가치관 변화와 같은 구조적·심리적 요인들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 자체가 출산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경로가 아니라는 점, 미혼·비혼 인구 증가와 혼외

출산 관용성 부족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 여부만으로 출산 지연 또는 출산의향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MIMIC 분석은 출산을 둘러싼 부담의 성별 불균형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불균형이 출산 결정 지연 경향을 강화하고 출산의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결혼 여부는 출산 지연에 대한 설명력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보여, 출산 결정이 단순히 혼인 여부의 함수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 과정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책 및 개입 전략에서 성평등한 돌봄 구조 구축, 여성의 출산·양육 부담 완화,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안 감소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출산 결정 지연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다차원적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개념적·측정적 기여를 갖는다. 기존 연구가 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사회문화적 부담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이를 6개의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구조화하여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 의사결정의 지연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타당도 검증과 MIMIC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신뢰성과 집단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는 출산의향, 우울, 행복 등 관련 변인과의 명확한 관계를 보여 구성 타당도를 지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잠재평균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의 개발은 향후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출산 지연의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질적 장점을 제공한다.

셋째, 본 척도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적 계산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부담·사회문화적 압박·미래 전망 등 정서적·인지적 요인들을 포착함으로써 출산 연구의 관점을 확장했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향성, 성 평등적 돌봄 구조, 미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포함한 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결혼 여부가 출산 결정 지연을 설명하지 못한 결과는, 출산을 결혼 제도에 결속하여 이해하는 기존 정책 틀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접근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출산 결정을 둘러싼 심리사회적 지형을 실증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정책적 논의에 대한 근거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지점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가 개발한 척도는 출산 결정 지연의 요소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출산 행동은 정책 환경, 파트너와의 관계, 경제적 사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외생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척도의 점수가 실제 출산 행동, 출산 시기 변화, 혹은 장기적 삶의 경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예측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정책 변화나 개인의 생애사적 사건을 고려한 종단 연구를 통해 척도의 실질적 설명력을 강화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미·비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 결정 지연 중에서도 첫 출산 결정의 지연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출산율의 감소와 지연은 이후의 출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 전체 출산율(TRF, Total Fertility Rate) 저하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다. 또한 추가 출산이 이미 형성된 가족 구조와 자원 배분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적 결정에 가깝다면, 첫 출산은 '부모가 될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전환을 수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첫 출산 결정에 초점을 두어 부모 역할로의 진입이 유보되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결정 지연은 첫 출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추가 자녀 출산 여부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출산 순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 및 검증함으로써, 출산 결정 지연 현상의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비출산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다른 문화권에 일반화되기에는 제한적이다. 출산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인 맥락은 문화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구 문화권에서는 개인 선택권과 경력 개발 요인이 보다 핵심적인 지연 요인일 수 있는 반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족 규범이나 사회문화적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다양한 문화권에 적용하여 측정 구조의 동등성을 검토하고, 각 문화에서 출산 결정 지연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문화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결혼 유무에 따른 하위 요인의 평균 차이를 MIMIC 모형을 통해 검토하였으나,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단계적 측정

동일성 검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MIMIC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만큼 본 척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구조로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측정 구조의 동등성을 재검증함으로써 본 척도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출산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출산 결정 지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함으로써, 출산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제적 부담, 개인 선택권 추구, 출산·양육 건강 부담, 사회적 지원 부족, 미래 세대 염려, 사회문화적 압박이라는 여섯 요인이 출산 결정 지연을 구성함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단편적 접근을 넘어 보다 구조화된 설명 체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 학문적 논의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Asparouhov, T., & Muthén, B. (2009).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6(3), 397-438.
- Bongaarts, J., & Sobotka, T. (2012). A demographic explanation for the recent rise in European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 83-120. <https://doi.org/10.1080/10705510903008204>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Cerny, B. A., & Kaiser, H. F. (1977). A Study Of 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For Factor-Analytic Correlation Matric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1), 43-47.
- Clark, L. A., & Watson, D. (1995). Constructing validity: Basic issues in objective scale develop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7, 309-319.
- Chen, M. (2024). Lat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high-income and low-fertility East Asian societies. *Asian Population Studies*, 20(3), 241-244. <https://doi.org/10.1080/17441730.2024.2348931>
- Choi, S., & Kwan, D. E. (2023). Examining the Link Between Future Prospects and Intentions to Have Children. *Journal of Policy Studies*, 38(1). <https://doi.org/10.52372/jps38105>
- Cho K. A. (2021). Korea's low birth rate issue

- and policy direction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7(1), 6-9.
- Cronbach, L. J., & Meehl, P. E. (1955). Construct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s. *Psychological Bulletin*, 52(4), 281-302. <https://doi.org/10.1037/h0040957>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 (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MN: NCS Pearson, Inc.
- DeVellis, R. F. (2012).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Inc.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
- Güney, E., Karataş Okayay, E., & Ucar, T.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hildbirth and the Desire to Avoid Pregnancy among Young Unmarried Women. *Turkish Journal of Family Medicine and Primary Care*, 736-743. <https://doi.org/10.21763/tjfmpe.113253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im, H. W., & Kim, S. Y. (2023). Gender differences in willingness for childbirth, fertility knowledge, and value of motherhood or fatherhood and their associ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2021. *Archives of Public Health*, 81(1), 110. <https://doi.org/10.1186/s13690-023-01127-x>
- Kim, E. H.-W. (2017). Division of domestic labour and lowest-low fertility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7, 743-768. <http://www.jstor.org/stable/2633221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wan, D. E., & Choi, S. (2023). Examining the Link Between Future Prospects and Intentions to Have Children. *Journal of Policy Studies*, 38(1), 59-70. <https://doi.org/10.52372/jps38105>
- Kwon, Y. I. (2014). Understanding expected number of children of childless married and single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2), 251-264. <https://doi.org/10.5934/kjhe.2014.23.2.251>
- Lebano, A., & Jamieson, L. (2020). Childbearing in Italy and Spain: Postponement Narrativ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6(1), 121-144. <https://doi.org/10.1111/padr.12313>
- Li, R. (2025). The Impact of Subjective

- Well-Being on the Fertility Intentions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Critical Humanistic Social Theory*, 2(1).
<https://doi.org/10.62177/chst.v2i1.159>
- Muthén, B. O. (1989). Latent variable modeling in heterogeneous populations. *Psychometrika*, 54, 557-585
- Novelli, M., Cazzola, A., & Angeli, A. (2021). Fertility Intentions in Times of Rising Economic Uncertainty: Evidence from Italy from a Gender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4, 257-284.
<https://doi.org/10.1007/s11205-020-02554-x>
-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18d8db3-en>.
- Shin, H., Lee, A., Choi, S., & Jo, M. (2025). Childbearing inten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single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31(1), 15-27.
<https://doi.org/10.4094/chnr.2024.025>
- Shin, H., Lee, J., Kim, S. J., Jo, M. (2020). Attitudes towards Parenthood and Fertility Awareness in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6(3), 329-337.
<https://doi.org/10.4094/chnr.2020.26.3.329>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http://dx.doi.org/10.1002/9781118356258>
- World Economic Forum. (2025). *Global gender gap report 2025*.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gender-gap-report-2025/digest/>
- Yang, T., Yi, J., Zhu, T., & Liu, T. (2025). Marriage timing and depressive symptoms: insights from social clock theory. *Cogent Psychology*, 12(1).
<https://doi.org/10.1080/23311908.2024.2435095>
- Zhao, J., Qi, W., Cheng, Y., Hao, R., Yuan, M., Jin, H., Wang, Y., Lv, H., Wu, Y., & Hu, J. (2024).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on fertility intention among women of childbearing age without children: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family communi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Reproductive Health*, 21(1), 135.
<https://doi.org/10.1186/s12978-024-01855-5>
- 김지성 (2025). 출산의 사회적 의미와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시적 분석. **한국정책연구**, 25(2), 199-228.
<https://doi.org/10.46330/jkps.2025.06.25.2.199>
- 김경선, 오진환 (2007). 여대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연구 - Q방법. **주관성 연구**, (15), 149-161. G704-001986.2007..15.006
- 김성엽, 이지혜, 전은정, 박성민 (2023). MZ세대의 결혼 및 출산 결정요인 실증연구: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한 성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 행정논집, 35(3), 287-313.
<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287>
- 김석호 (2022),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조사 연구**, 23(2): 1-33.
<https://doi.org/10.20997/SR.23.2.1>
- 김인춘, 김중순, 최정원 (2024). 한국 저출산 (생) 현상의 이해를 위한 심층인터뷰 조사 연구 결과와 함의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 **동서연구**, 36(3), 91-126.
<https://doi.org/10.29274/ews.2024.36.3.91>
- 권민혁, 김은하 (2022). 한국판 출산만족척도 (K-BSS-R)의 타당화.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8).10.5762/KAIS.2022.23.8.598
- 대한민국 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시행계획.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BSI-18)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https://doi.org/10.15842/kjcp.2012.31.2.006>
- 박다운, 유계숙 (2011).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29-65.
- 박미경 (2022). 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MZ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2(1), 33-54.
<https://doi.org/10.46330/jkps.2022.3.22.1.33>
- 배윤진, 김자연, 이혜민 (2024).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환경 조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러다임을 대상으로**(연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04-238.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신윤정, 이명진, 전광희, 문승현 (2020).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명진 (2023).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TDIB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41-166.
[10.54711/KSSR.35.2.05](https://doi.org/10.54711/KSSR.35.2.05)
- 이윤석, 김필숙, 심규선 (2016). 가치관과 출산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학회, 연구보고서**, 44-07.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임지영 (2022).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포럼**, 2022(6), 105-118.
- 장선화 (2018). 일-가정 균형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유럽연구**, 36(2), 155-185.
- 정문경 (2023). 비혼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45(12), 1313-1327.
<https://doi.org/10.33645/cnc.2023.12.45.12.1313>
- 조광덕 (2022). 종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사회**, 36(3), 243-292.
- 조형숙, 조현정 (2021).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011~2020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

집25(3),253-277.

<https://doi.org/10.32349/ECERR.2021.6.25.3.253>

주혜민, 양수진 (2025). 미혼 여성 대상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K-AFC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38(2), 19-36.

10.35574/KJDP.2025.6.38.2.19

최영미, 박윤환 (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36),101-137. 10.22842/kgucfh.2019..36.101

통계청 (2024). **"2024년 1월 인구동향"**, 통계청 인구동향과.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ildbirth Decision Delay Scale

Choi Hyosun¹ Lim Jiyoun² Yang Sujin³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h.D.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³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designed to capture how individuals perceive and evaluate delayed childbearing decisions across multiple psychosocial dimens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1,347 childless adults aged 25-40 years, and a cross-validation approach us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as employed. The findings supported a 20-item, six-factor structure encompassing economic burden, prioritization of personal autonomy, health-related concerns, lack of social support, concerns about future generations, and sociocultural pressure. The scale demonstrated strong internal consistency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supported by theoretically consistent associations among fertility intentions, de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Furthermore, nomological network analyses indicated that delayed childbearing decisions significantly predicted fertility intentions,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for construct validity. Overall, this scale provides a comprehensive tool for researchers and clinicians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psychosocial processes underlying childbearing decision making.

Keywords : Childbirth Decision Delay, Scale development, Low fertility